

정밀화, 최소화로 환경문제 푼다

Pollutec 96을 다녀와서

정연균 / 연구개발부 과장

- ▶ 참가기간 : 96. 10. 22 ~ 10. 25
- ▶ 장 소 : 프랑스 리옹 Eurexpo 전시장
- ▶ 참가목적 : 환경관련 장비, 기술 및 용역시설에 대한 선진기술 및 연구동향 파악

선 진국의 환경관련 측정장비, 기술 및 용역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Pollutec 96에 참가하였다. Pollutec은 1978년에 발족된 프랑스의 환경산업, 기술 및 서비스 전시회로서, 1992년까지는 2년마다 프랑스의 두번째 주요 도시인 리옹에서 개최되



Eurexpo 전시장 입구 전경

었으나 방문객 및 전시업체수의 증가로 1993년부터 짝수해는 리옹, 홀수해는 파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Pollutec 96에는 폐기물, 수질, 대기, 소음, 악취, 에너지 절약, 청정기술분야에서 대략 24개국 1700여개 업체와 프랑스 환경부, 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환경관련 정부기관, 무역협회, 국

제기구, 공사립 연구소, 대학, 교육기관, 참관단, 출판, 환경컨설팅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방문객은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Eurexpo 전시장의 면적은 70,000m²로서 모두 10개의 Hall로 구분되며, Conference Room과 Pollutec 소식을 중계하는 TV 스튜디오, 식당, 보도실, 우체국 그리고 은행 등의 편의 시설이 있었다.

리옹 공항으로 마중 나온 재발 환경 전문가인 김명수 박사의 안내로 김박사 자택 근처의 호텔로 이동하는 것으로 리옹에서의 출장일정이 시작되었다. 지어진 지 100년 된 그 건물은 복도를 걸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낡은 건물이었으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전통을 보존하는 프랑

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호텔 부근의 역으로서 고속전철인 TGV가 지나가는 Part-Dieu역과 대비를 이루었다.

김박사의 안내를 받은 일행은 본인외 3개팀이 더 있었으며 모두 같은 호텔에 숙소를 정하였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박원규 박사, 우리나라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를 경영하는 정강수씨, 파리에 본사를 둔 환경



소각로로 투입되기전 쓰레기 벙커 모습

컨설팅 회사의 재발 사업가인 권형진씨와 재발 중국인 Kwan Shan씨 등이 김박사의 안내로 Pollutec 96을 참관하였으며 박사과정에 유학중인 김종환씨도 동행하였다.

전시회 첫날인 10월 22일은 수처리분야와 각종 환경관련 장비에 관한 전시장을 주로 방문하였다.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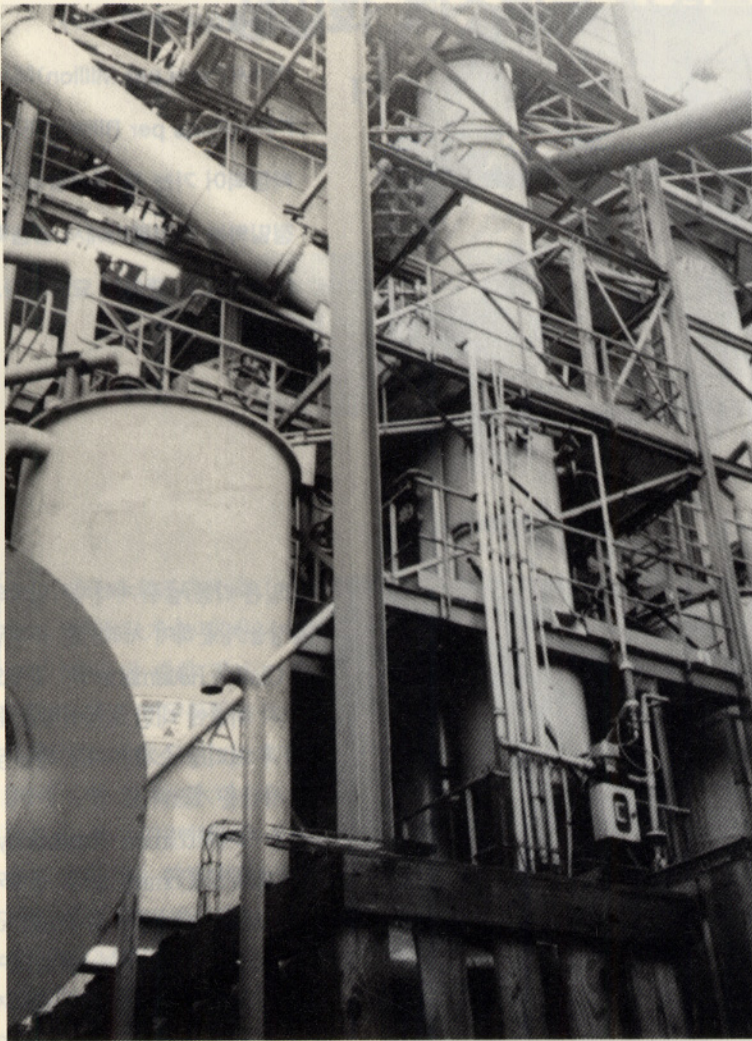
물질의 측정단위가 PPM(Parts per Million)에서 PPB(Parts per Billion)까지 확장되어 가는 등 분석장비의 정밀화가 환경분야에서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전시된 각종 첨단 환경 분석장비들은 선진국과 우리와의 기술력 차이를 느끼게 하였다.

오염물질의 측정단위가

PPM(Parts per Million)에서 PPB(Parts per Billion)까지 확장되어 가는 등 분석장비의 정밀화는 환경분야에서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3일은 리옹 남부 지역자치단체의 소각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 부책임자인 Claude Rousmans씨의 설명으로 소각 시설에 대한 현장설명을 듣고 난 후 처리장 소개 비디오 관람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리옹 지자체(Urban Community)는 55개의 도(Commune)로 구성되어 있으며 18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거주인구는 120만명이고, 환경관련 시설로는 2곳의 매립지와 11곳의 수거장소 그리고 2곳의 소각장(북부와 남부)을 보유하고 있다. 일행이 방문한 남부 소각장은 Port Edouard Herriot에 위치하고 있으며 3개의 스토커식 소각로에서 하루 800톤의 도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다.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선별처리시에는 톤당 1000 French Franc이 소요되나 선별하지 않고 처리할 때에는 350FF



연소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Wet Scrubber

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별 처리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었으며, 프랑스 국민들의 경우 오랫동안 길들여진 쓰레기 처리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길거리에 담배꽂이를 버리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호등과 무관하게 길을 건너는 사람과 횡

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들을 보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이 쉽지 않을 것은 충분히 공감아가는 부분이였다.

사후처리 기술(End-of-pipe Technology)보다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오염원에서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청정기술(Clean Technology)개발로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을 미루어 보아,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미 G-7의 한 나라인 프랑스의 수준을 능가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을 가져 보았다.

10월 24일과 25일에는 대기 및 폐기물 분야의 전시장을 주로 방문하였으며 김박사, 정사장 등 환경관련 전문가들과 전시회 참관 및 국내외 환경 실정에 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가간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동소이한 보고서가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다른 이름으로 발표되거나, 기업체의 경우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과거의 전철을 이제는 답습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국내 건설업체중 환경분야에서의 다소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경우 일정부분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시회 참관후 선진 환경 기술업체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금번 출장의 소득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SS**